

뉴스 라운드업

- 미국 7월 소매판매 예상외 감소에 임박한 Fed 추가 인상 기대 후퇴,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하고 유로 두 달 만에 최고치 경신
- 미 국채 30년물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도달, 독일·프랑스 국채금리도 각각 15년·2009년 이후 최고치 경신하며 글로벌 커브 스티프닝 심화
- 이란 "공세 전환" 선언과 트럼프 오만 폭격 위협에 지정학 리스크 고조, WTI 84.50 달러(+2.55%)·VIX 15.18(+6.45%) 동반 상승
- 캐나다, 19일 대미 50% 관세 시행 시한 앞두고 자동차 관세 25%→15% 인하 협상 종결전

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달러는 밀렸지만 장기금리는 되레 오르며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글로벌 커브 스티프닝을 다시 자극했다

지난밤(현지시간 8월 17일) 뉴욕증시는 소매판매 지표 부진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했다. S&P500은 전장 대비 -0.52%, 나스닥은 -0.32% 밀렸고 유럽 STOXX600도 -0.22% 약세로 마쳤다. 미국의 7월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임박한 Fed 추가 인상 기대를 다소 낮췄다. 9월 FOMC에서의 인상 반영 확률은 일주일 전 약 50%에서 30%대로 낮아졌는데, 이는 7월 회의에서 위원회가 9대 3 표결로 동결을 결정하며 내부 매파-비둘기 균열이 커진 가운데 나온 변화다. 다만 시장이 여전히 인하가 아닌 동결·추가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(9월 동결 61%·인상 39%, 인하는 0%)은 달라지지 않았다. 달러인덱스는 99.58로 소폭 밀렸고 유로/달러는 두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.

흥미로운 대목은 단기 정책금리 기대가 낮아졌음에도 미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이다. 미국 10년물은 4.726%(+3.4bp), 2년물은 4.182%(+1.1bp)로 마감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됐고, 30년물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. 유럽에서도 흐름은 비슷했다 — 독일 10년물이 15년 내 최고 수준 근방에서 거래됐고, 프랑스는 10년물이 2009년 6월 이후, 30년물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각각 경신했다. 중동 정정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며, 이는 글로벌 동조 커브 스티프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과 부합하는 흐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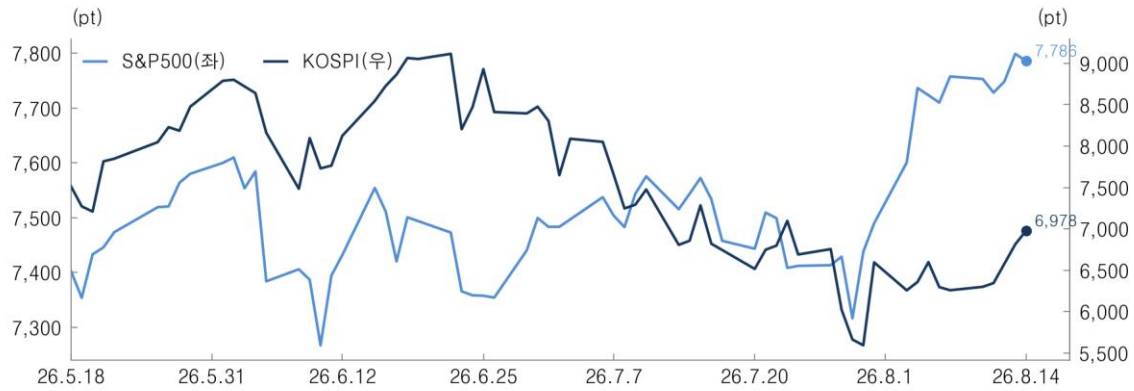
지정학 리스크도 재차 부각됐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오만이 협상에 "방해가 되면" 폭격하겠다고 위협했고, 이란은 6월 체결된 잠정 합의가 사실상 와해된 지 60일이 지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방어에서 "전면 공세"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.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WTI는 배럴당 84.50 달러(+2.55%)로 올랐고 VIX도 15.18(+6.45%)로 뛰었다. 다만 오늘 아시아 증시 수치는 닛케이 +0.74%, CSI300 +1.61%, 코스피 +2.42%, 항셍 +1.34%는 어제 낮 장에서 이미 마감된 것으로, 간밤 미국 지표와 이란발 긴장 고조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. 그 여파는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. 한편 캐나다는 19일(수) 예정된 대미 50% 관세(약 200억 달러 규모 대상)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%에서 15%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, 6월 국제자본유출입(TIC) 자료는 일본·영국·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가 9.299조 달러로 소폭 줄었음에도 전체 순자본유입은 1,335억 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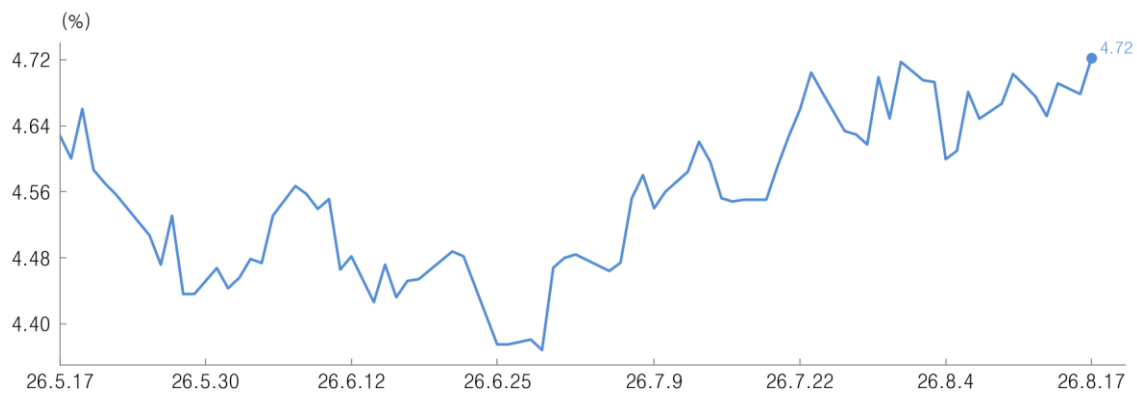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745.06	-0.52%	8/17 종가
	나스닥	26,644.90	-0.32%	8/17 종가
	STOXX 600	656.41	-0.22%	8/17 종가
	닛케이 225	69,220.03	+0.74%	8/17 종가
	CSI 300	4,741.10	+1.61%	8/17 종가
	KOSPI	6,977.94	+2.42%	8/14 종가
	항셍	25,453.23	+1.34%	8/17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58	-0.06%	8/17 종가
	달러/엔	159.41	-0.01%	8/18 종가
	유로/달러	1.16	-0.01%	8/18 종가
	달러/원	1,415.29	-0.08%	8/17 종가
	달러/위안	6.74	-0.02%	8/17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726%	+3.4bp	8/17 종가
	미국 2 년	4.182%	+1.1bp	8/17 종가
	일본 10 년	2.923%	+4.5bp	8/17 종가
	독일 10 년	3.234%	+2.2bp	8/17 종가
	한국 10 년	4.300%	+0.7bp	8/14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67bp	-4.0bp	8/14 종가
원자재	WTI	84.50	+2.55%	8/17 종가
	금	4,415.97	+0.91%	8/17 종가
	구리	6.62	+0.05%	8/17 종가
변동성	VIX	15.18	+6.45%	8/17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15 건 HIGH	• 미국 경제 약세로 9월 인상 가능성 급락 — 장기 금리는 역설적 상승 - 소매 판매 등 경제지표 약화로 9월 인상 확률이 일주일 전 50%에서 30-31%로 급락(CME 페드워치 기준), 로이터 설문에서 104명 경제학자 중 80명이 2026년 연중 현재 금리 수준 유지 예상(전월 78명) - 역설적으로 30년물 국채 수익률 5.29%까지 상승(2007년 이후 최고) — 단기 금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또는 재정 부담 우려 지속 - 글로벌 주가 엇갈림(STOXX 600 보합·나스닥 선물 +0.5%), 달러지수 99.42(-0.17%)로 6월 이후 최저 기록, 유로 \$1.1595(+0.22%)로 강세 • 캐나다 7월 인플레이션 3% 돌파 — 에너지·여행료 상승에 정책 경직 시나리오 재부상 - 연율 3.0%(예상 2.9%, 전월 2.8%), 월율 +0.5%(예상 +0.4%) — 캐나다중앙은행(BoC) 통제범위 상한(1~3%) 정확히 도달, 미국-이란 긴장 고조로 휘발유 가격 상승·여행료 인상이 주요 원인 - 코어 인플레이션 상승(BoC +2.3% 연율, 전월 +2.1%) — 기저 물가 상승 압력 지속 - 캐나다달러 1.3850 달러당(전일 대비 +0.2%, 6월 1일 이후 최강), S&P/TSX 지수 0.2% 하락 — 인플레이션 정점에 따른 정책 경직화 우려로 주가 약세 • 미국-이란 관계 악화로 에너지 공급 불안 확대 — 트럼프, 임시 합의 연장 거부 - 트럼프 대통령, 미국이 이란과의 임시 합의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 공식 표명 - 이란 측, 외교 협상 실패 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세적 조치 실행 위협 — 에너지 공급 불안 확대, 글로벌 유가 상승 압력 예상
미국 뉴스 56 건 HIGH	• 미국 주식 약세, 30년물 국채 수익률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 — 소매판매 부진으로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축소 - S&P 500, 나스닥, 다우 모두 지난 밤 하락 마감, 달러는 2개월 저점(유로 대비 6월 이후 최고)으로 약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 — 미국 재정 악화 우려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채 발행 급증이 국채 매도 압력 확대 - 시장이 연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축소 — 예상을 벗어난 소매판매 부진 데이터가 경기 약화 신호로 작용 • 8월 뉴욕 제조업경기 지수예상을 크게 상회 — 물가압력 심화 신호 - 엠페이어스테이트(Empire State) 제조업경기지수 +20.6(컨센서스 +11.0, 7월 +15.6) — 예상 11포인트 상회 - 제조업 물가지표(prices paid index) +58.6(7월 +52.3) — 물가상승 압력 지속 심화 • 트럼프, 이란 협상 결렬 주장 — 항복 요구 및 오만 폭격 위협까지 - 트럼프 지난 밤 '이란이 필요한 수준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' 주장 - 양해각서 체결 이후 60일간 협상 교착 상태 지속 — 미국, 협상 연장 추구 안 함 - 트럼프, 호르무즈 해협 협상 관련해 오만에 대한 폭격 위협까지 언급 • 캐나다, 8월 19일 기한 앞두고 50% 추가 관세 피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협상 가속

구역	요약
	↳ 미국, 19 일(수요일) 기한으로 캐나다산 200 억달러 상당 상품에 50% 추가 관세 발동 예정 — 와인·가구·낙농·목재 등 이미 어려움 겪는 산업 포함 ↳ 자동차 관세 협상: 현행 25% → 15% 감축 검토 중, 원산지 기준에서 미국(미국산만 차감)과 캐나다(북미 전체 차감 요구) 입장 엇갈림 ↳ 15% 관세는 일본·한국·유럽연합(EU) 수준으로, 북미 자동차 업계도 현행 25%보다 낫다는 평가 — 총리 마크 카니 및 협상팀 최종 협상 중 • 6 월 해외 미국 국채 보유 감소, 일본·중국·영국이 매도 주도 ↳ 6 월 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액 9.299 조달러로 5 월(9.371 조달러) 대비 -720 억달러, 전년 동기 대비는 +2.3% (연간 추세 여전히 상승) ↳ 민간 자본 순유입 급감(850 억달러, 5 월 1,714 억달러) — 민간 부문 국채 이탈 신호 확대 ↳ 공식 자본(중앙은행) 흑자로 전환(+484 억달러, 5 월 -399 억달러) — 중앙은행의 지지 의사 시사 • 라틴아메리카 통화 강세,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축소 속 달러 약화 ↳ MSCI 라틴아메리카 통화지수 +0.22%(달러 약화의 수혜) ↳ MSCI 라틴아메리카 주식지수 -0.1%(상품 가격 회복이 낙폭 제한) ↳ 브라질: 10 월 대선 결선 앞두고 여론조사서 룰라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에 앞섬
유럽 뉴스 11 건 HIGH	• 유로존 각국 정부채 수익률 다년 고점으로 급등, 중동 분쟁 장기화에 인플레이 지속성 우려 ↳ 프랑스 30 년물 4.8558%(2008 년 9 월 이후 최고), 10 년물 4.0516%(2009 년 6 월 이후 최고) ↳ 독일 10 년물 3.2138%(2011 년 5 월 이후 최고), 이탈리아 30 년물 4.8185%(2023 년 11 월 이후 최고) ↳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, 인플레이 지속성이 장기 채권수익률 급등 견인 • EU 외교안보 담당 칼라스 수석대표, 향후 대규모 러시아 제재 추진 예고 ↳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약 1,600 건의 추가 제재 지정 계획 ↳ 현재까지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€1 조(약 \$1.16 조) 이상의 손실 초래 • GBP/USD 1.3771 로 2 개월 고점 경신, 임박한 영국 고용·물가 발표에 변동성 확대 가능 ↳ 고용·임금 지표, 소비자물가(CPI) 발표 임박 ↳ 7 월 소비자물가 2.9% 예상(6 월 2.6%), 상향시 영국 중앙은행(MPC) 매파 기조 강화 가능 ↳ 지난달 MPC 위원 3 명이 금리 인상 투표, 시장은 9 월 인상 확률을 약 25% 평가 • 스웨덴 리스뱅크, 정책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 예상,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 낮음 ↳ 분석가 18 명 중 17 명이 20 일 정책금리 1.75% 동결 예상 ↳ 17 명 중 10 명은 연말까지 현 수준 유지 전망, 물가 둔화 추세 속 추가 인상 조치 제한적
인도 뉴스 10 건 HIGH	• RBI 의 외환스왑 시설 8 월 31 일 폐쇄 공시, 은행들 달러 차입 2 주 안에 집중 ↳ 해외거주 인도인 예금의 환리스크 헤징 수단으로 쓰인 외환스왑 창구 폐쇄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대체 자금 조달 시급 ↳ 은행들이 기존에 이 창구를 통한 해외 차입으로 거주자외국인 대출을 실행하며 RBI 의 금리 보조까지 받아왔는데, 해당 혜택도 8 월 말 함께 종료 예정 ↳ 10 년물 국채(2036 년 만기, 6.94% 쿠폰) 수익률이 6.807%로 치솟아 7 월 14 일 이후 최대

권역	요약
	낙폭(+5bp) 기록, 6.80% 저항선 돌파로 손절매 유도 • RBI의 유동성 과잉 관리 위해 현금 흡수 운영 강화 ↳ 8월 중 변동금리 역레포 경매 10회 실시하며 초단기 현금 흡수 운영 강화 ↳ 시스템 유동성 흑자가 금요일 기준 3.99조 루피(약 417억달러)로 4개월 최고 수준 기록 ↳ 코어 유동성 흑자 전망이 6월 초 4.7조 루피에서 8월 7일 7.7조 루피로 상향, 최정점 9.3조 루피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RBI의 지속 흡수 운영 불가피 • 인도 7월 실업률 5.1%로 4개월 최저, 예상 상회 ↳ 6월 5.5% → 7월 5.1%로 개선, 로이터 설문 예상(5.4%)을 웃돌며 강한 고용 개선 신호 ↳ 농촌 5.0% → 4.5%로 크게 개선한 반면 도시는 6.6% → 6.7%로 소폭 악화 • 인도, 파키스탄 정보기관 배후 테러분자 200명 이상 체포 ↳ 8월 12일 14개 주에서 동시 다국적 소탕 작전, 파키스탄 삼군 정보기관(ISI) 후원 테러 조직의 독립 80주년 전후 파괴적 공격 계획 사전 진압 ↳ '수십 년 중 최대 규모' 소탕 작전, 내무장관(아미트 샤) 발표
브라질 뉴스 22 건 HIGH	• 파사스 바이아, 2분기 손실로 파산 보호 신청 — 어제 저녁 주가 20% 하락 ↳ 지난 17일 저녁 상파울루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↳ 2분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 기록, 고금리·신용 제약·금융비용 상승으로 자금 조달 실패 ↳ 주가는 공개 후 20% 하락, 장 초반에는 최대 30% 낙폭 • 브라질 물가지수(IGP-10), 8월 -0.51% 디플레이션 — 예상 +0.09%를 크게 하회 ↳ 8월 IGP-10 -0.51% 기록, 로이터 설문 예상(+0.09%)을 크게 벗어남 ↳ 7월 -1.13% 대비 낙폭 반감 추세이나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 • 브라질 2분기 경제 성장 +0.2% 거의 제자리 — 서비스업 약세로 모멘텀 둔화 ↳ 중앙은행 경제활동 지수(IBC-Br) 2분기 전분기 대비 +0.2% 성장으로 실질 성장 속도 현저히 둔화 ↳ 6월 월간 경제활동 -0.6%, 예상(-0.53%) 대비 낙폭 확대, 특히 서비스 부문 침체 주도 ↳ 공식 GDP 통계는 별도 발표 예정 • 중앙은행 총재 갈리폴로, 수요 초과 상황에서 긴축적 금리 정책 필요성 강조 ↳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불균형 지속, 경상수지 적자와 비교역재 인플레이션으로 입증됨 ↳ 금리 인상은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요인(신용 과잉·수요 초과)이 핵심 원인이며, 가계가 신용카드 한도를 가용 소득으로 간주하는 행태로 인한 소비 눈덩이 효과 우려 ↳ 통화정책의 역할은 금리로 수급 재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, 동시에 공급측 개혁·생산성 향상도 필수 • 재무장관 두리강, 재정개혁의 '고통스러운 마지막 구간' 직면 — 의무지출·의원 배정 재검토 필수 ↳ 고금리·공채 잔액 증가·가계 레버리지 사상 최고 수준 근처 상황으로 신속한 개혁 필수 ↳ 의무지출 억제 및 의원 배정액(congressional earmarks) 규모 재검토 등 구조적 개혁 시급 ↳ 개혁을 통해 '개발 프로젝트로서의 국가 구상'으로 복귀 필수
EM 기타	• 이란, 미국과의 평화협상 교착 속 호르무즈 공세 전환

권역	요약
뉴스 8 건 HIGH	◦ 어제 이란 고위관리, 평화협상 진전 부재를 이유로 '방어→전면 공세' 정책 전환 공식 발표 ◦ 지난 6 월 체결 미국과의 임시합의가 급속 와해, 영구평화협상 진전 없음, 호르무즈 해협 유류수송 재개 중단 ◦ 이란 계열 후티군의 홍해 공격 실행,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높은 휘발유 가격 지속 경고, 걸프 증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로 하락 • 러시아 국영개발은행, 우크라이나 전쟁 '소모전' 패배론 경고 경제학자 해고 ◦ 5 월 금융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손실 및 국제경쟁력 후퇴 경고한 국영개발은행(VEB) 수석경제학자 클레파흐 해고 (지난주 언론 보도) • 몰도바 경제부, 2026 년 GDP 성장률 1.8%로 하향 ◦ 에너지 가격 상승, 중동 전쟁, 지정학적 불확실성 배경으로 기존 2.2% 전망에서 0.4pp 인하 ◦ 2027 년 성장률 3.6%→2.8%, 2028 년 4.0%→3.2%로 함께 하향, 2026 년 인플레이션 7.3% 예상
중국 뉴스 5 건	• 중국 총리, 국내 수요 부족 극복·외부 수요 안정화 정책 강조 ◦ 지난 17 일 리창 총리가 국무원 회의에서 국내 수요 부족과 기업 어려움, 외부 환경 불확실성 증가 지적 ◦ 외부 수요 안정화·국제 무역 협력 확대 추진, 정책 자금 배치 가속화 및 민간 신산업·신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방침 ◦ 배경: 부동산 위기 장기화로 인한 가계 소비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• 중국 1.2 조 달러 무역 흑자, 정부 입장문으로 EU 협상 기조 제시 ◦ 정부 공식 입장문(설비 과잉 관련, 7000 자+)을 통해 통상 협상 입장 제시 ◦ 분석: 중국의 입장이 경직되어 있어 EU 가 협상에서 얻을 성과 제한적이라는 평가
프론티어 뉴스 4 건	• 나이지리아 7 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5.43%로 소폭 완화(6 월 15.91%) ◦ 3 월 미국-이스라엘 대(對) 이란 전쟁 이후 국내 유가 급등으로 11 개월간의 물가 완화 추세 반전 ◦ 식량 인플레이션 전년 대비 20.31%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◦ 중앙은행, 중동 지정학 리스크 고려하며 금리 인하 중단 지속 • 루마니아, 2030 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 6.65% — 7 월 입찰 대비 13bp 상승 ◦ 발행액 800 백만 레이(약 \$ 177 백만), 투자자 입찰액 868.2 백만 레이에 대해 전량 배분(배분률 108.5%) ◦ 최고 수익률 6.66%로 평균 대비 1bp 차이에 그쳐, 시장 수요의 균형 분포 반영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